

기다리고 있어 일본여행

DEC. 2020.



하늘에서 본 후지산 ©일본정부관광국



Japan. Endless Discovery.



바다와 함께
추억도 달린다

▶ The Reason 10_가나가와 슬램덩크 에노덴

Kanagawa Enoden

바다와 함께
추억도 달린다

Contents

기다리고 있어, 일본여행 Vol.01 2020년 12월



Prologue	여행을 기다리는 마음	5
TalkTalk	여행기자들의 일본여행 수다	6
Tradition	역사 한 상의 가치	8
Story	자연과 전통의 조화, 이시카와	10
	순례 길에 깃든 소망, 야마가타	12
	믿음의 의미, 나가사키	13
Outdoors	온 몸으로 부딪히고 싶을 때	15
Story	오кина와, 거북이처럼 바다 탐험	16
	캠핑이 그리울 땐 후쿠오카	18
	캠핑의 재미를 더하는 올레길	20
	어디서나 후지산, 시즈오카	21

발행 | 일본정부관광국 JNTO www.japan.travel/ko/kr/ 발행일 | 2020년 12월

제작 | (주)여행신문 www.traveltimes.co.kr Travie www.travie.com

취재기자 | 김기남, 김선주, 천소현, 손고은, 김예지, 이성균, 강화승, 이은지, 박서희

디자인 | 이금주 마케팅 | 전정환, 전병대, 최영근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 및 판권은 (주)여행신문에 있습니다. 내용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Cuisine	조금 많이 먹는 게, 뭐 어때서	22	Nature	위로를 건네는 자연의 손길	36
Story	일본의 부엌에서 위로를	23	Story	몸에 좋은 여행, 시나노마치 숨겨진 협곡 모험, 시코쿠	38
	사케 한잔 낭만 한입, 간사이 사케 여행	26		연못을 담은 한 폭의 그림, 후쿠이	42
	고기 한점 육즙 팡팡, 고베 소고기 맛에 풍당	28	Art	예술과 일상, 경계를 허무는 여행	43
Cities	사람의 얼굴을 닮은 도시	29	Story	돗토리, 예술의 감동이 프레임 안에	44
	도쿄 구석구석	30		도자기의 옛 실리콘밸리, 오카와치야마	46
	오사카에서 한 걸음 더	32	Relaxation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행지	48
	반짝이는 전통마을 구라시키	34	Story	47가지 기쁨으로 우레시노	49
				치유와 상생의 길 미야기울레	50
				우리가 고토로 간 이유	53



가나자와 히가시차야 거리

다시 시작될 여행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다. 느닷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쳐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의 모든 여행을 집어삼켰다. 한국과 세계를 잇느라 더 없이 분주했던 하늘길은 텅 비었고, 일상 같았던 여행은 지극히 비일상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잠깐이면 끝나겠지 했던 여행 실종 시대가 어느덧 일 년을 다 채워간다. 여행이 멈추고 나니 비로소 여행의 소중함도 알게 됐다. 누구랄 것 없이 다들 여행을 그리워하고 다시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여전히 터널의 끝은 기약할 수 없지만 부질없는 꿈은 아니다. 홀연히 사라졌던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불쑥 되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일본을 여행하는 이유

2,483만명 중 714만명, 2,693만명 중 754만명... 비율로 따지면 대략 30%다. 해외여행이 일상 같았던, 그러니까 전성기였던 2017년과 2018년, 우리나라 해외여행자 10명 중 3명은 그렇게 일본을 택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찾던 해외 여행지가 바로 일본이다. 그 저력 덕택에 2019년 '노 재팬' 파고 속에서도 558만명이나 일본을 여행하지 않았던가! 도대체 일본의 어떤 매력에 여행자는 빠져들까? 세계에 여행지로서 일본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는 일본의 관광전담조직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7가지 테마 100가지 체험거리로 압축했다. '100 Experiences in Japan' 속에는 우리가 동경하는 일본만의 전통(Tradition), 아웃도어(Outdoors), 음식(Cuisine), 도시(Cities), 자연(Nature), 예술(Art), 휴식(Relaxation)이 오롯이 담겨 있다.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기를!

코로나19 이후 시대, 여행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고 기존의 질서가 뉴노멀로 대체되고 있으니 여행도 분명 새로운 얼굴로 우리를 맞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여행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공간에서 나와 다른 사람, 낯선 문화를 접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과 배려로 인류애를 키우는 여행의 가치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다리고 있어, 일본여행>은 여행의 본질과 가치를 믿으며 여행자와 여행지가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다. 우리는 다시 자유롭게 일본으로 여행 갈 수 있기를 기다리며, 일본은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 조만간 둘의 기다림은 말끔히 해소될 테지... 그때까지는 이렇게 추억여행으로, 비대면으로, 방 안에서, 랜선으로 서로를 만나는 수밖에 없다.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기다리고 있기를! 김선주 기자

여행기자들의 일본여행 수다 

기다리고 있어, 다시 떠날 일본여행

여행잡지 트래비(Travie) 기자들이
일본여행을 향한 그리움을 수다로 풀었다.
휴가와 출장을 통해 꼼꼼하게 다양하게
들어다봤던 여행기자들의 일본여행, 그 뒷얘기다.

참가자 | 김선주·손고은·이성균·이은지·곽서희 기자



일본체험 100선(100 Experiences in Japan) 책자 표지

7개 테마로 즐기는 100가지 일본여행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2019년 6월, 7개 테마 100가지 체험거리로 일본여행을 소개하는 '일본체험 100선(100 Experiences in Japan)' 책자를 제작했다. 외국인들이 좀 더 다채롭게 일본을 여행할 수 있도록 일본 전역에서 매력 있는 여행콘텐츠를 모집했고 그 중 100개를 선정했다. 일본을 많이 다녀온 여행자들에게도 생소한 스팟과 체험거리가 많아 새로운 일본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물론 첫 방문자에게도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 같다. 아쉽게도 코로나19 탓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는 못했다.

 한국인이 가장 편하게 접하고 실제로 많이 찾는 테마는 **도시(Cities)**와 **음식(Cuisine)**인 것 같다. 출장으로 도쿄에 갔을 때 도청 전망대에서 본 도쿄 야경과 골목골목 숨어 있던 서점들이 인상적이었다. 도쿄가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구석구석에 소박한 매력이 많이 숨어 있어 흥미로웠다.

 서점 여행 마니아도 있더라. 도시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면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야경 감상 스팟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롯폰기힐즈 등에서 도쿄타워를 다방면으로 감상할 수 있고, 스카이트리에서 도심 전체를 내려다볼 수도 있다. 도쿄역 맞은편 쇼펄몰에서는 무료로 도쿄역 야경을 볼 수도 있다.

 도쿄도청 꼭대기 전망대에서 마신 생맥주 맛을 잊을 수 없다.

 도쿄도청은 확실히 압도적인 느낌이 있고, 무료라는 장점도 있다.

 먹고 마시는 음식 여행지로는 단연 오사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일본의 부엌이라는 애칭도 있다.

 도쿄는 여행명소들이 도심 전역에 흩어져 있는 느낌인 반면 오사카는 우메다, 난바 두 곳에 집중돼 있다. 2박3일 내외의 짧은 일정이라도 오사카에서 집중적으로 푸드투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타코야끼, 오코노미야끼, 야끼소바 등 간단한 식사부터 가이세키와 레스토랑 파인다이닝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다. 또 오사카 아사히 공장 견학도 추천한다. 생맥주 맛이 역대급으로 좋았다.

 사케와 와인 등 양조장 투어도 빠질 수 없는 재미다. 술 관련해서 도쿠시마가 여전히 생각한다. 술 마시는 스타일이 한국과 비슷하달까. 한 번 먹을 때 끝까지 달리고 술마시기 게임도 좋아하고..., 원샷 잔 등 술 관련 기념품도 재밌는 게 많다.

 오사카를 포함해 간사이 지역은 간사이패스와 오사카주유패스 등이 있어 여행하기 편하다. 교토, 나라 등 오사카와 가까운 도시들을 묶어 방문하기도 좋았다.



일일 3회 온천욕은 기본

 **휴양(Relaxation)** 테마로는 온천, 미식, 캠핑 등 여러가지가 떠오른다. 일본 사찰은 숲 같은 자연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 새벽 산책에 나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유명한 곳 뿐만 아니라 작은 신사도 괜찮다. 후쿠이현 에이헤이지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이른 새벽과 평일 오전에 두 차례 들렀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운치 있고 좋았다.

 서양인이 보기에 일본의 사찰이나 신사 같은 **전통(Tradition)** 문화는 신비로울 것 같다. 아마가타현 쇼나이33 관음성지순례도 대표적인 성지순례 여행지다. 우리나라 템플스테이 같은 체험도 있을 것이다.

 휴식은 역시 온천이다. 온천을 빼고 일본여행을 설명할 수 없다. 체크인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자마자 목욕하고 차 한 모금으로 가볍게 몸을 푼다. 이후 가이세키와 반주를 즐기고 다시 온천을 즐긴다. 저녁 온천 이후 마시는 맥주도 빠트릴 수 없는 재미다. 아침 온천도 필수다. 온천여행은 확실히 부모님의 만족도가 높은 여행법이다.

 일본 전역에서 온천은 흔한데, 우레시노, 유후인, 도고 등 특히 유명한 온천마을들도 많다.

 일본 캠핑 경험이 있는가.

 시도했지만 결국 하진 못했다. 언젠가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캠핑으로는 후쿠오카와 고토열도가 유명한 것 같다. 고토열도는 나가사키 옆에 있는 섬인데 곳곳에 캠핑장이 잘 갖춰져 있고, 작은 섬은 자전거로 일주도 가능하다.

 후쿠오카의 경우 시나 현에서 직접 운영하는 캠핑장이 많다. 시설도 깔끔하고 가방만 들고 가볍게 방문할 수 있다.

 **아웃도어(Outdoor)** 하면 패러글라이딩도 빠트릴 수 없다. 후지산을 볼 수 있는 시즈오카 패러글라이딩은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소개돼 한국인에게도 익숙하다. 방송 당시 꽤 호응이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후지산을 보는 게 큰 장점인 것 같다. 돗토리현의 패러글라이딩도 눈여겨볼 만하다.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전문가가 뒤에서 방향을 조종해줘 일반인들도 편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것 같다.

 막상 타면 그렇게 무섭지도 않다. 하늘에서 보는 자연 풍경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자연(Nature)**이라고 하니 홋카이도도 떠오른다. 겨울에는 설경, 여름에는 라벤더밭이 특히 예쁘다.

 7~8월 한국이 한창 더울 때 홋카이도는 시원한 편이라 여름 휴양지로 인기가 많다. 한국인들이 한창 갈 때는 비싼 가격의 전세기로도 많이 찾았다. 비에이, 후라노 등 꽃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어 많이들 찾는다. 설경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세계적인 유명하고 샷포로 눈 축제의 각종 작품도 인상적이다.

 자연스럽게 **예술(Art)**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일본에는 안도 타다오를 비롯해 유명 건축가가 많아 미술, 공예품 등 예술 테마여행으로 많이 가는 추세다.

2021년에는 꼭 다시!!

 한국인의 일본여행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까지 1년 이상 멈춰 있다. 오랫동안 멀어진 만큼 마니아층은 하루빨리 일본여행이 재개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 같다. 한일 양국간 정치외교적 이슈도 코로나19로 희석된 감이 있다.

 불매운동도 확실히 예전보다 누그러진 것 같다. 또 여행과 정책을 분리하려는 여론도 커진 느낌이다.

 일본은 한국인 출국자 3~4명 중 1명이 갔을 정도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여행지다.

 코로나19 위험이 낮아지고, 환율도 괜찮다면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가장 먼저 회복될 것 같다.

 그때까지는 일본여행 기사나 사진, 영상 등으로 아쉬움을 달래며 참을 수밖에 없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테마의 일본여행이 뜰까.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테마부터 부상하지 않을까. 온천, 먹방투어 등 말이다. 또 안전을 의식해 료칸 같은 독채 숙소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 같다.

 섬 여행, 캠핑 등 사람이 덜 몰리는 여행 선택도가 높아질 것 같다.

 사람 간 접촉 등 위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으니 야외활동이 늘어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차박 열풍이 불고 있듯이 일본여행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 같고, 자연스레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예 새로운 여행상품이 출시될 수도 있다.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

 늦어도 2021년 7월 도쿄올림픽 즈음까지는 가능해지면 좋겠다.

역사 한 상의 사치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다. 여행을 할 때마다 출발 전 여행지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웬지 역사도 모르고 그곳을 방문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달까. 모름지기 역사 정도는 알고 가줘야지, 라는 느낌의 알량한 허영심도 한 스픈 있었다. 그런데 그 알팍한 계기 덕에 '역사 검색'은 어느덧 습관으로 굳어졌다. 이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여행을 가면, 텅 빈 껍데기 위에 텅그러니 서있는 기분이다. 외롭고, 행하다. 나에게 역사 없는 여행은 반토막짜리 여행이 돼버렸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전통은, 말하자면 잘 우려낸 차와 같다. 오랫동안 찬찬히 시간이 우려나올수록 맛은 더 짙어진다. 국가와 지역마다 고유의 차 맛이 있듯, 전통도 그렇다. 그중 일본의 전통은 유난히 단팥이 있다. 자연이다. 일본의 전통과 자연은 이를테면 차와 다과 같은 것이다. 서로 어우러질 때 풍미가 배가된다. 숲과 신사, 성당과 바다, 정원과 연못, 모자람 없는 조합이다. 여행자는 그저, 예쁘게 차려진 다과상을 양껏 즐기면 하면 그뿐이다. 그래서 고백한다. 오늘날만큼 사치를 좀 부려보고 싶다. 삼나무 그늘 아래에서 호젓하게 다과상 가득 차려놓고 풍류를 즐기는, 그런 종류의 사치 말이다. 아, 물론 진짜 다과상 얘기는 아니다. **곽서희 기자**



교토의 기온 거리를 연상시키는 가나자와 히가시야 거리

자연과 전통의 조화

이시카와

이시카와는 반전을 선사했다.
자연 속에 녹아든 이시카와의
전통문화를 통해서였다. 대도시의 빌딩숲이나
화려한 건축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름이기도 했다. **Travie**

가장 가나자와다운 것

이시카와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호쿠리쿠 지역의 중
심도시인 가나자와는 옛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조
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전통적
이고도 '가나자와다운' 거리를 찾았다면, 역시 히가
시 찻집(히가시차야)거리다. 에도시대(1600~1867
년) 풍류 일번지로 불렸던 거리로 일본의 게이샤 문
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고풍스러운 목조 가옥들
이 즐비하게 서 있는 히가시차야 거리의 길 전체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일본어로 찻집(오차야)이라곤 하지만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곳은 아니다. 에도시대, 이곳에선 부유한
상인들이 게이샤를 불러 사케를 마시며 연회를 열
었다. 히가시 찻집은 상류층의 사교장이었던 셈이
다. 지금도 이곳에선 게이샤들의 공연을 볼 수 있
다. 찻집 2층에서 히가시 거리를 내다보며 한가롭
게 양갱을 곁들인 말차를 마셔 봐도 좋다.

현재 이 거리에서 여행자의 발길이 가장 잦은 곳
은 금박공예품을 파는 공방이다. 이시카와를 여행
하다 보면 어디서든 쉽게 금박공예품을 볼 수 있
다. 이시카와의 금박 생산량은 일본 전체 생산량
의 9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금을 1만분의 1mm
까지 얇게 펴 금박을 만들 만큼 수공기술이 뛰어
나다. 금박 액세서리에서부터 금박 화장품, 금박
카스테라까지 그 영역에도 한계가 없다. 이 히가
시차야 거리에서 금속제품을 취급하는 공방은 3
개 정도인데, 공방마다 판매품이나 분위기가 조금
씩 다르다. 그중 금박 2만장을 붙여 만든 방은 놓
칠 수 없는 볼거리다.



가나자와의 히가시 찻집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게이샤 문화



가나자와 겐로쿠엔의 한가로운 풍경



자연을 품은 겐로쿠엔

정원에 비친 600년의 세월

이시카와에서 가장 가나자와다운 거리가 히가시
차야 거리였다면, 가장 가나자와다운 정원은 바
로 겐로쿠엔이겠다.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로
꼽히는 겐로쿠엔은 전통적인 미를 뽑내는 곳으
로, 일본 정원의 전형으로 불린다.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겐로쿠엔 그림을 보면
600년 전 겐로쿠엔과 현재 모습이 거의 다르지
않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지나온 정원이다.

겐로쿠엔에서는 물이 정원 전체를 관통한다. 그
만큼 물의 역할이 중요하다. 놀라운 것은 10km
떨어진 곳의 물을 끌어오기 위해 350년 전 기술
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현대시설
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는 예부
터 자연과 자연방식에 대한 신뢰로 정원을 만들
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일까, 정원에서는
인공적인 기계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자박자박 자
갈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만 오
롯이 들릴 뿐이다.

한가운데 연못을 파고 주위에 정원을 조성했지만
겐로쿠엔에는 연못만 있는 게 아니다. 산이 있고,
폭포가 있고, 섬이 있다. 매화나무 숲도 있고, 기
러기가 날아가는 모양의 다리도 있다. 정형화된
유럽의 정원과 달리 겐로쿠엔은 숲과 산, 물과 섬,
동물 등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담아냈다. 에도시
대 영주님을 위한 정원은 어느덧 이시카와 사람들
의 심신을 달래 주는 자연의 쉼터가 되었다. 전통
속에 녹아든 삶. 이들에게는 당연할지도 모를 일
이 이방인의 눈에는 한없이 아름답게만 비친다.



3산의 신들이 모두 모셔져 있다는 산진고사이텐



즈이신몬



유도노산 입구를 지키고 있는 빨간 도리이

순례길에 깃든 소망 ❀ 야마가타

사람들이 삼나무 숲 오솔길을 걷는다.
저마다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숲 어딘가에 그들의 소망을 들어줄 성지가 있다.
야마가타 쇼와33관음 성지순례 이야기다. [Travie](#)



경건하게 집행되는 호마행 의식



삼나무향 가득한 하구로산 순례길

신들의 모임장소

'데와 3산'은 예부터 야마가타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겨온 갓산, 유도노산, 하구로산 3개의 산을 말한다. 사람들은 작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산과 그 주변의 사찰과 신사를 순례했다. 그렇게 300여 년 전에 순례길이 생겨났다. 그 중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사찰을 엮어 '쇼나이 33관음 성지순례지'가 탄생했다.

데와 3산의 신들은 모두 하구로산에 모여 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가깝고, 참배에 나서기에도 부담이 없으며, 한겨울에도 눈이 잘 쌓이지 않는 특성 덕분이다. 셋 중 두 명의 신이 하구로산 순례길 관문의 경계를 맡고 있다. 즈이신몬이라는 이름의 문이다. 그 뒤편으로는 내리막길이 나왔다. 걸어 내려가자 사방으로 300년에서 500년의 나이를 자랑하는 삼나무가 뽐뽐하게 서있다. 그 가운데 우뚝 선 29m 높이의 하구로산 오중탑은 박힌 못 하나 없이 1,000년의 세월을 견뎌왔다. 하구로산 정상부에서 산진고사이텐을 마주했다. 두꺼운 지붕 아래에 세 개의 현판이 나란히 자리했다. 3산의 신들이 이곳에 모셔져 있다는 뜻이었다. 이전까지는 불교의 부처와 데와 3산의 신을 함께 모시는 신불습합(일본의 신기 신앙과 불교

신앙이 결합된 신앙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루어졌던 곳이나, 메이지 원년(1868년)에 정부가 발표한 신불분리령에 의해 불교 사찰이 될 것인지 신사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고 했다. 그 결과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예전처럼 관세음보살도, 불교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산진고사이텐은 완벽한 신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소소한 염원 하나를 들고 이곳을 찾는다. 이곳이 신사든, 절이든 간에 말이다.

신의 체운을 느끼는 일

유도노산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고개를 바짝 치켜들어야 끝이 보일 정도로 거대한 도리이 옆에 자리한 건물로 들어섰다. 유도노산 신사를 관리하는 곳이다. 함께 순례에 나선 일행이 한 공간에 모이자, 성직자는 불을 끄고 암막 커튼으로 빛을 차단했다. 호마행이라고 부르는 의식이 시작됐다. 150년 전까지 이곳에 있었던 천태종 사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의식으로, 선조의 넋을 기리고, 이곳을 찾은 이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셔틀버스를 타고 유도노산의 중턱까지 올랐다. 좁은 골목을 따라 조금씩 발걸음을 내디뎠다. 신이 이 길의 끝에 있다.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반신반의하며 마주한 모습은 거대한 바위. 그것도 피부색과 비슷한 노란빛을 띤 바위였다. 신이 왜 바위의 모습이란 말인가, 의아해하던 차 바위 위로 흐르는 물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지열을 받는 암반이 따스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위를 덮은 물 역시 온천수인 것. 오른손을 펴서 바위에 갖다 대었다. 마치 사람의 체온, 아니 신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제야 비로소 신을 만나는 길에 오른 것만 같다. 신성한 기운이 몸을 감싼다.

믿음의 의미 ✿ 나가사키

산티아고나 시코쿠의 순례길처럼
정해진 순례길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톨릭 문화유산이 산재한 나가사키를 거닐었다.
믿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다. *Travel*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나가사키의 가톨릭 성지들

일본 그리스도교의 시작점

무로마치 막부 말기 일본 각지가 전쟁으로 혼란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1550년, 예수회 소속 선교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가고시마를 거쳐 이곳 히라도에 도착했다. 포르투갈은 포교를 조건으로 무역을 하고 있었기에 교역을 통해 막강한 힘을 얻고자 한 영주들은 포교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히라도는 일본 그리스도교의 시작점이 된다. 수세기가 흐르고 옛 영화는 오간 데 없이 한적한 섬마을이 되었지만 곳곳에 이국적 정취를 풍기는 가톨릭 교회와 성지가 남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 선교사 추방령을 발령하고, 정권을 이어받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14년 금교령을 내리면서 가톨릭 신자(키리시탄)를 엄격히 단속했다. 키리시탄으로 살고자 하면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다. 때문에 히라도를 비롯해 나가사키현의 오래된 성당들은 대부분 20세기 초에 완공된 것들이다.

종교를 넘어서신 믿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 금교령을 내렸지만 가톨릭의 교세는 잠재위치지 않았기에 당시 수도였던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서 24명의 가톨릭 선교사와 신자를 체포해 나가사키까지 걸어오게 한 뒤 처형했다. 오는 도중에 2명이 더해져 모두 26명이 1597년 2월5일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서 순교했다. 본보기였다.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박해는 근대로 넘어 오는 도쿠가와 막부 말기 개항이 되기까지 무려 250여 년간 지속됐다. 구구절절한 역사도 모르고 가톨릭 신자도 아닌 내가 나가사키의 성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나카마치 성당에서 만난 히사시 신부는 종교를 떠나 '믿음'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종교라는 것은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믿는 것과 같은 거라고. 들리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키리시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종교를 넘어서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마음 말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일까. 그전에 나는 과연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Experiences in JAPAN Outdoors



온몸으로 부딪히고 싶을 때

광활한 자연은 때때로 사람을 압도한다. 구름 사이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우뚝 솟은 산과 끝을 모르고 흘러가는 넓은 바다. 두 눈으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절경을 바라본다. 무한함을 욕심내는 유한한 존재란 한없이 작다. 이다지도 벅차다. 그럼에도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 건 자연이 주는 평안 때문일 테다. 자연의 흐름은 인간과 바이올린과 닮아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짧은 인류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굴곡과 때 묻은 시간은 역설적일지라도 경외감과 평온함을 함께 선물한다. 문득 건방지고도 발칙한 생각이 떠오른다. 뛰어들고 싶다.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자연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오감을 이용해야 한다. 하나의 감각만으로 체험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아쉬우니까. 깨끗한 바닷물에서 다이빙 하고, 패러글라이딩 하며 힘껏 올랐던 두 발 대신 날개를 달고 하강해보자. 일본에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매니아들을 위한 역동적인 체험들이 가득하다. 그러니 온몸으로 부딪혀보자. *이은지 기자*

치유의 섬 ❀ 오키나와

휴식이 필요하다. 오키나와가 그림다.
오키나와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보듬는 시간이 펼쳐진다.
세상에서 가장 맑고 투명한 물빛을 천천히 유명해보자. **Travie**



오키나와 고하마 해변

거북이처럼 바다 탐험

일본 끝자락에 위치한 오키나와는 일본인들에게도 꿈의 섬이다. 넓은 면적에 160여 개의 섬이 흩어져 있고, 물이 맑고 투명해 스쿠버다이빙 포인트로도 이름이 높다. 초보자들도 쉽게 스노클링을 즐기며 바닷속을 여행할 수도 있다.

이시가키는 오키나와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오키나와에서 다시 400km,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초록빛 바다 아래로 알록달록한 산호초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카리바완 만에서 유리 바닥이 설치된 보트를 타면 맑은 바다가 발아래 펼쳐진다. 이시가키는 주변 섬을 알차게 둘러보기에도 제격이다. 고하마, 다케토미, 미야코로 이동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고하마. 이시가키에서 페리로 약 이십여 분이 걸린다. 스노클링을 즐기기 위해 보트로 갈아탔다. 마침내 다이빙 포인트에 보트가 도착하는 순간 맑은 바다 빛깔에 환호가 쏟아진다. 물이 너무 맑은 나머지 보트의 그림자가 해저에 그대로 비친다. 가장 깊은 곳은 30m 정도 되지만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인다. 10분 정도 가이드에게 설명을 듣고 드라이슈트로 갈아입었다. 오리발을 차고 수경을 쓰고 바다로 침범 뛰어든다. 각양각색의 산호초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과연 다이버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다이빙 포인트답다.

바다를 마음껏 탐험한 뒤 뱃전으로 올라와 드러눕는다. 몽게몽게 솜사탕 같은 구름이 느릿느릿 하늘을 헤엄친다. 여행을 떠나와서 하늘을 볼 때마다 새삼 감회가 새롭다. 매일 보는 하늘인데도 떠나오면 어찌나 새로운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건 여유롭다는 방증이라서일까. 숙소로 돌아와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내일 하루를 또다시 기억해본다. 하나 둘 머리 위로 돌아나는 별이 꼭 나침반 같다.



오키나와 고하마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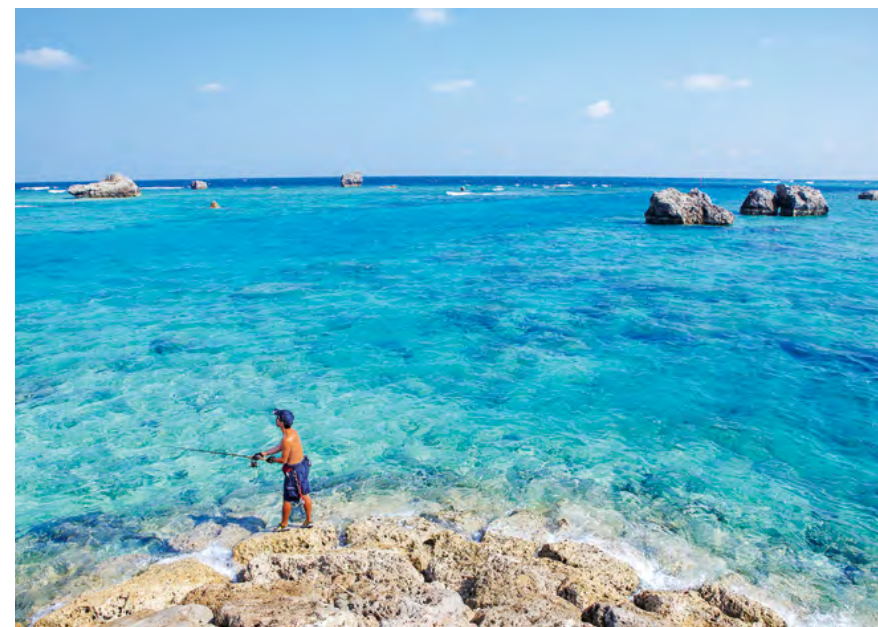
미야코는 미야코

투명한 물빛이 찬란하게 일렁인다. 미야코의 아름다운 색은 '미야코 블루'라는 본연의 이름으로 불린다. 일본의 아름다운 해변을 꼽는다면 항상 상위권으로 꼽힐 정도. 평탄한 지형 덕에 바다로 흠이 흘러가지 않아 절경을 자랑하는 해변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아름다운 풍경에 즐길 거리가 빠질 수 없다. 미야코는 해양스포츠의 천국으로도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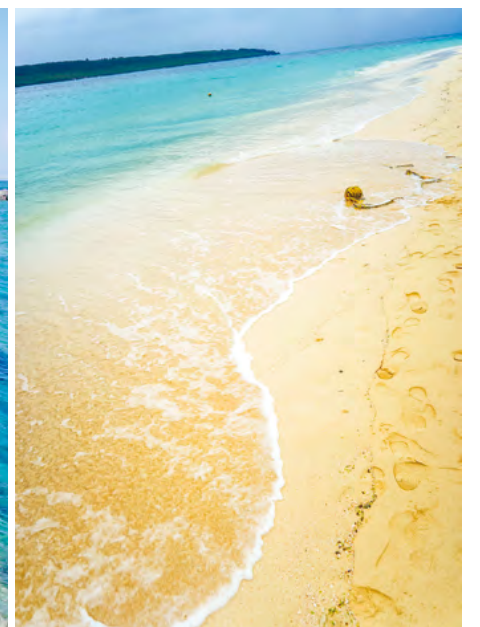
스나야마 비치는 한가롭게 일광욕을 하며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곳이다. 스르르 밀려왔다 어느새 자취를 감추는 파도의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생각에 빠지게 된다. 나만의 속도로 세상에 부딪히고, 때로는 물러날 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해하지 말고 나만의 리듬으로 세상에 한 발자국씩 내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노클링, 핀 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마음껏 즐기며 힘을 얻어 간다. 인생도 여행처럼 마음껏 즐겨보겠노라고.

동남쪽으로 이동하면 일본 100대 절경인 히가시헨나자키에 닿는다. 둥그란 바위가 에메랄드빛 바다에 둥둥 떠 있고, 저 멀리 흰 등대는 바다를 지키는 중이다. 쏟아지는 햇살에 따라 물빛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간질간질 파스한 바람이 콧등을 지난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니 찌들었던 마음까지도 깨끗이 씻겨나가는 기분이다.

넓은 해변을 원한다면 요나하마에하마로 향하자. 저 멀리 깊은 바다의 네이비블루 빛깔이 백사장을 향해 다가오며 점차 투명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야코섬 최대 규모의 해변으로,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덕에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이케노야마 캠핑장

캠핑이 그리울 땐 ❀ 후쿠오카

온몸이 가뿐하다. 후쿠오카 현지 캠핑장은 웬만한 장비는 다 갖추고 있으니 꼭 필요한 것만 챙겨 가볍게 떠나도 문제없다. [Travie](#)



이케노야마 캠핑장 호수



규슈 올레 미야마 · 기요미즈야마 코스

숲에서의 하룻밤

캠핑장으로 가는 길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하다. 캠핑 명품 브랜드 스노우 피크 다자이후점에서는 한국에는 없는 한정판 소품부터 솔깃한 세일 품목까지 가득. 가볍게 떠나왔건만 어느새 가방을 채우게 된다. 이어 유메타운 야메점에 들러 식재료를 구입했다. 저렴한 육류부터 마트표 회, 7도의 스트롱 캔맥주를 담고 나서야 발걸음을 재촉했다.

드디어 이케노야마 캠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별의 고향이라는 뜻의 호시노 무라에 위치해 벌써부터 밤이 기다려진다. 밤에 별 문화관(천문대)에 올라가면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이리도 낭만 적일 수가! 미리 예약한 로지에 도착해 식재료를 내려놓고 캠핑 사이트로 향한다. 텐트를 펼쳐 뼈대를 맞추고, 에어매트에 숨을 불어넣었다. 돌돌 말아놓았던 침낭을 탁탁 펼치자 어느새 근사한 잠자리가 완성됐다. 사이트에는 깔끔하게 정비된 식수대와 화장실은 물론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자리하고 있다.

캠핑의 꽃은 역시 바비큐다. 잘 익은 숯불 위에 고기를 올려놓으니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져 온다. 로지 안에 작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있고, 요리에 필요한 모든 집기를 구입하거나 빌릴 수도 있으니 마음껏 솜씨를 뽐내본다. 배를 가득 채우니 잠이 솔솔 몰려온다. 폭신하고 따뜻한 텐트에 누워 잠을 청하다 다시 밖으로 나온다. 밤은 길고, 별빛은 무한하니 사라지는 밤의 한 조각이 아쉬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규슈 올레 중 미야마 · 기요미즈야마 코스로 향한다. 나무에 둘러싸인 삼층석탑을 바라보다 계곡 아래 오백 나한상에게도 눈길을 건넸다. 어느새 철수할 시간이다. 빌린 장비를 반납하고,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하게 분리수거까지 완벽히. 두고 온 게 없는데도 아쉬움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 다음 캠핑은 하루 더 머무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캠핑의 재미를 더하는 후쿠오카 올레길 ③

걸음이 인연을 만든다. 후쿠오카는 규슈에서 가장 많은 올레길을 품고 있다. 다양한 매력을 품은 6가지의 후쿠오카 올레 코스 중 난이도별로 3곳을 꼽아봤다.

초록에도 향기가 있다면

야메 코스

녹차 밭이 광활하니 끝이 없다. 완만한 곡선을 따라 걷는 규슈올레 야메 코스는 걷는 내내 퍼져 나오는 초록빛이 향기롭다. 호시노강 남쪽이 보이는 야마노이 공원에서 출발해 이누오 성터를 지나면, 야메중앙대다원에 이른다. 65ha 규모의 녹차 밭이 만들어내는 절경에 발걸음은 절로 느려진다. 양중맞은 어린 녹차의 싱그러움에 힘을 얻는다. 발걸음이 가볍다.

난이도 하 거리 11km 시간 약 3시간~4시간 소요



오감으로 걸어요

신구 코스

후쿠오카의 신상 올레길이다. 후쿠오카의 중심인 하카타와 텐진에서 30분만 이동하면 만날 수 있다. 알찬 과육을 자랑하는 다치바나 굴밭이 바로 신구 코스의 시작. 대나무숲을 지나 오르막으로 오른다. 신구 코스의 뷰 포인트인 사랑의 언덕에서는 도시와 현해탄이 한눈에 들어온다. 약 20만 그루의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면 하얀 모래와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신구 해안을 마주하게 된다.

난이도 하~중 거리 11.9km 시간 약 4시간~5시간 소요

섬 한 바퀴

무나카타 오시마 코스

배를 타고 들어가야 비로소 만날 수 있으니 더욱 특별하다. 오시마섬은 후쿠오카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섬을 한 바퀴 돌기만 해도 뿌듯함이 솟아난다. 코스 초입에 위치한 신사 무나카타 타이샤에서 교통안전을 기원하고 224m의 미다케산을 오른다. 약 40분을 걸어 정상에 전망대에 닿으니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절경이 펼쳐진다.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떠난다. 역새와 바다가 기다린다.

난이도 중~상 거리 11.4km 시간 약 4시간~5시간 소요



어디서나 후지산 ❀ 시즈오카

시즈오카 패러글라이딩

후지산이 가장 가까운 곳. 시즈오카에서는 트레킹, 패러글라이딩 등 후지산을 느끼고 싶은 여행자들을 위한 다양한 아웃도어가 펼쳐진다. **Travie**



시즈오카 캠핑 및 카누

하늘 위에서 보는 후지산

시즈오카는 도쿄와 나고야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을 품고 있다. 깊이 2,500m로 일본에서 가장 깊은 스루가만은 물론 오이가와 강과 미나미알프스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과 온난한 기후가 만들어 내는 녹차, 굴, 메론 등 다양한 농산물도 즐길 수 있다.

시즈오카현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은 후지산을 찾아가는 것이다. 후지산에 오르기 전 후지노미야센 겐타이샤 신사에 들러 안전을 기원하며 기도를 해도 좋다. 후지산 꼭대기의 눈이 녹아 내려오며 만들어진 폭포인 시라이토노타키도 일품이다. 투명하고 맑은 물을 보며 하얀 모자를 쓴 후지산 정상 모습을 가늠해본다. 특히나 후지산 등산에서는 일출을 백미로 꼽는데, 발 아래로 펼쳐진 아침의 구름과 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이 황홀할 정도다.

후지산과 함께 한 폭의 그림이 되고 싶다면 패러글라이딩에 도전! 후지산 아래 스카이아사기리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이 가능하다. 하늘 위에 높이 뜨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가득하지만 거대한 후지산이 눈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외국인의 경우 강사와 함께 타는 탄템 코스만 선택할 수 있다. 든든한 강사가 받쳐주니 초보자여도 걱정은 필요 없다. 하늘을 날며 속이 뻥 뚫리는 상쾌함과 엉덩이에 닿는 폭신한 바람을 만끽한다. 지레 겁을 먹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가까워지는 지표면에 아쉬움만 남는다.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부담도 없다. 그럼에도 두려움에 망설여진다면? 카누나 트레킹을 하며 특별한 경험으로 일정을 채워보자.



조금 많이 먹는 게, 뭐 어때서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 차갑지 않고 시원하다. 짜지 않고 담백하다. 달콤하고 부드럽다. 위와 혀를 자극하는 조미료 대신 담담한 식재료 본연의 맛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푸짐하지 않아 보이는데 다 먹고 나면 든든하다. 절제와 조화의 기술도 화려하다. 모든 음식에 향신료는 최대한 줄이고 각각 어울리는 그릇에 보기 좋게 다복다복 담는다. 일본 음식이 대체로 그렇다.

몇 번의 일본 여행을 떠올리면 입안에 침부터 고인다. 따뜻한 가정식 밥상부터 각종 면요리와 산해진미로 삼시세끼를 배불리 먹고도 틈이 날 때마다 길거리 간식이며 디저트를 탐했고 밤에는 부드러운 생맥주와 은은한 사케를 마셨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는 기어코 편의점에 들러 다음날 아침을 위한 푸딩과 도시락까지 챙겨야 비로소 만족하고 마는, 시간은 가는데 이상하게도 먹고 싶은 것들은 자꾸 늘어났다.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는 일의 연속. 일본 여행은 결국 미식 여행이 되고야만 다. 다시, 일본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소화제부터 챙길 일이다. 손은 기자



오사카를 대표하는 일본식 빈대떡 오코노미야끼

탱글탱글한 문어를 품고 있는 길거리 간식 타코야끼

부드러운 달걀을 올린 오므라이스는 일본인들의 소울푸드

일본의 부엌에서 위로를 ❀ 오사카 로컬 푸드투어

우리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일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 그래서 여행의 가장 좋은 방식은 먹고 마시는 일이다.

먹고 마시는 인생과 같은 여행을 실천하고 싶다면 오사카로 가도 좋다. [Travie](#)

본고장 맛 좀 볼래?

오사카는 가깝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30분이면 닿을 수 있으니 아침 일찍 출발해 저녁에 돌아오는 짧지만 알찬 여행도 가능하다. 오사카는 예부터 물류의 중심지였다. 도지마의 쌀시장, 덴마의 채소시장, 자코바의 어시장이 3대 시장으로 오사카 서민들의 배를 채웠다. 질 좋은 식재료를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 음식 문화가 발달한 건 우연이 아니다.

오사카를 본고장으로 둔 몇 가지 음식이 있다. 오코노미야끼, 타코야끼, 오므라이스 그리고 쿠시카츠다. 오사카에서 시작해 일본 전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케이식이다. 오코노미야끼는 일본식 빈대떡이다. 오사카에서는 잘게 썬 양배추와 해산물, 고기 등의 재료를 기호에 따라 선택한 후 밀가루 반죽에 섞어 구워낸다. 뜨겁게 달군 철판에 반죽을 올리면 '콧아-' 하는 소리와 함께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참을 수 없는 기다림이다.

갓 부쳐낸 오코노미야끼 위에 뿌린 달콤한 소스가 입맛을 돋운다. 겨울철 단골 간식 타코야끼의 본고장도 오사카다. 오사카에서 만드는 타코야끼는 흐물흐물한 식감이 특징이다. 덜 익은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큼직하고 탱글탱글한 문어를 감싼 촉촉한 빵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뜨거운 타코야끼에 입천장을 뿔 수 있으니 서두르면 당한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 오므라이스는 1922년 오사카 훗큐쿠세이에서 처음 탄생한 이후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볶음밥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달걀을 조심스레 갈라내 소스에 묻혀 먹는 것도 오므라이스를 즐기는 묘미 중 하나다. 오사카의 또 다른 명물 쿠시카츠는 다양한 재료를 꼬치에 꽂아 튀겨 내는 음식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등에 빵가루를 입혀 뜨거운 기름에 튀기면 맥주 안주로 이만한 게 없다. 이러니 오사카에서는 삼시세끼가 불가능하다. 최소 '삼시오끼'를 하고 돌아오게 된다.

150년 된 옛 민가를 개조한 카페



프랑스식 햄, 테리를 얹은 샐러드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



데미그라스 소스 맛이 훌륭한 오모라이스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 내 핀란드 레스토랑



핀란드식 오픈 샌드위치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사카 중앙공회당

늦은 밤 뒷골목의 낭만

시끌벅적한 도톤보리 메인 거리에서 한 블록만 벗어나면 갑자기 골목의 느낌이 호젓해지고 붉은 초롱을 내건 아기자기한 식당과 주점이 보일 것이다. 그럼 '호젠지요코초'에 도착했다는 의미다. 확실히 해두고 싶다면 '호젠지'라는 절을 찾아가면 된다. 60여 개의 식당과 주점이 다닥다닥 늘어 서 있는 골목에 매일 밤 사람들이 모인다. 또 다른 오사카의 밤 풍경은 우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덴마에서 만나볼 수 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길이 약 2.6km의 아케이드 '덴진바시스시' 옆길을 따라 식당과 주점을 찾는다. 마음에 드는 곳 어디라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현지인들의 삶 속, 어딘가에 잠시 들러보자. 덴마만 한 곳이 없다.

후쿠시마의 뒷골목도 꽤 낭만적이다. JR후쿠시마역에서 가까운 거리는 일본 고전 영화 속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다. 맛있는 축제는 저녁 6시 이후부터다. 분위기에 취한건지, 술에 취한건지, 일단 발을 들이면 막차가 끊기기 직전까지 술잔을 기울이고야마는 그런 곳. 자전거를 끌고 나와 적당히 마시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이들도 상당한 듯하다. 후쿠시마 거리의 주점 앞에는 반듯하게 주차된 자전거가 종종 눈에 띈다.

혹시 드라마 <심야식당>을 즐겨 본 적 있다면 시끌벅적한 도심 가운데 어느 곳에 꼭꼭 숨어 있는 식당들이 반가울지도 모르겠다. 좁은 주방과 그 앞으로 설치된 바, 두어 개의 테이블.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 첫차가 다닐 때까지 묵묵히 주문을 받고 안주를 내는 식당들. 말 그대로 오사카의 심야식당들이다. 멀치조림이나 계란 샐러드와 같은 간단한 요리에 사케 한잔을 기울이기 적당하고, 메뉴판에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기꺼이 어떤 음식이든 만들어주는 시스템의 심야식당을 찾았다면 만세를 부를 일이다.

10평 남짓의 소박한 선술집부터 특색 있는 바, 정겨운 심야식당까지. 술잔에 고이는 오사카의 밤은 이렇게나 달콤하다.

100% 여유 충전

힘든 일은 털고, 무심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공간.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도시의 번영을 이끈 옛 건물이 가진 힘이다. 오사카는 에도시대부터 동서를 잇는 중개교역으로 번영을 이뤘다. 17세기경 인구 4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사회, 산업, 문화가 동시에 꽃을 피우며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가 됐다. 오사카에는 당시 근대시대를 이끌던 회사며 도서관, 각종 문화 공간은 물론 옛 주택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은 세월의 흔적을 품은 채 식당이나 카페 등 아늑한 공간이 되어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한다.

오사카 중앙공회당에는 당시 오사카의 번영과 시민의 긍지가 담겨 있다. 1911년 주식 중개로 돈을 번 이와모토 에이노스케가 오사카 시민들의 문화 공간 마련을 위해 내놓은 100만엔을 기반으로 지어졌다. 중앙공회당에 선뜻 거액을 내놓은 이와모토 에이노스케는 몇 년 후 주식 대폭락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바람대로 중앙공회당은 여전히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소설 공간에 파묻혀 일본인들의 소울푸드 오모라이스 한 그릇을 톡톡 해치우고 나면 구슬픈 인생사도 쉬이 스쳐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옆자리에 위치한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도 오사카를 대표하는 근대건축물 중 하나다. 이쯤 위로받은 영혼들은 도서관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의 차 한 잔이 여유롭게 느껴질 테다.

그밖에도 오사카 곳곳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연륜을 가진 건물의 변신을 포착할 수 있다. 19세기에 지어진 빌딩에서 90년 이상 서양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이 있는가 하면, 150년 이상의 옛 민가를 개조한 카페도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낯선, 뼈저리게 거리는 소리에 낭만이 흐른다.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싶어지는 따뜻한 공간. 그곳이 어디든, 배터리에 여유가 100% 충전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리라.



화려한 도톤보리 야경



JR후쿠시마역 근처의 뒷골목 풍경



오카무라촌에서 제조하는 사케

사케 한잔, 낭만 한입 ❀ 간사이 사케 여행

벌컥벌컥 시원하게 들이키는 맥주 한잔, 한 모금씩 훌쩍이며 음미하는 와인. 그게 어떤 맛인지 잘 알겠는데 사케는 아직 서먹하다면 간사이로 떠날 것. 사케와 막역한 사이가 되어 돌아올 거라 장담한다. **Travie**

사케라는 술

사케는 배우로 치면 요리라는 주연을 빛내주는 조연이다. 하지만 사케 없는 식탁을 떠올려 보면 애기가 달라진다. 초밥, 튀김, 나베 곁에 사케가 없다면, 얼마나 허전할까. 사케는 반주로 즐기 더할 나위 없는 술이다. 차게 마실 수도, 상온에서 마실 수도, 따뜻하게 마실 수도, 뜨겁게 마실 수도 있다. 사케를 어떻게 마시면 더 맛있을까? 고민해 보는 일은 즐거운 숙제다.

사케의 은근한 매력은 쌀에서 나온다. 쌀, 물, 누룩, 효모로 만드는 양조주니까. 포도 품종이 와인 맛을 좌우하듯, 쌀 품종은 사케 맛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인들은 일찍이 밥 맛 좋은 쌀로 술을 만든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양조용 쌀, 주조미를 개발했다. 주조미 중에도 80년 전에 개발한 특대형 쌀, 아마다니시키를 최고로 치는데, 아마다니시키는 생산량의 80%가 간사이 효고현에서 재배된다. 그러니까 간사이 지역은 사케 여행하기 적절하다는 주장은 꽤 합리적이다.

사케 빚기는 도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쌀겨를 깨끗이 벗겨 낸 후 알을 으스러뜨리지 않고 깎아 내 절반만 쏙 남겨야 한다. 최소 20%에서 최대 65%까지 도정한다. 쌀을 많이 깎을수록 곡물 향이 날아가고 과일 향이 향긋한 사케가 되기 때문이다. 공들여 정미한 쌀은 다시 깨끗이 씻고 불려서 찐다. 찐쌀을 누룩에 비벼 띄운 후, 효모와 물을 넣고 발효시키면 밑술이 된다. 밑술이 발효가 끝나면, 압착기에 넣어 사케와 술지게미로 분리한다. 사케의 등급은 쌀을 깎고 남은 비율(정미율)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쌀을 많이 깎아 만든 술을 고가의 상등급으로 친다. 쌀 가운데 절반이 사케의 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쌀을 50% 이상 깎아 낸 다이긴쵸는 최고급 사케로 구분된다.

이렇게 사케 만드는 과정을 글로 쓰면 복잡하다. 하지만 유서 깊은 사케 양조장에서 직접 누룩을 만들고 사케를 짜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느새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오직 일본의 사케 양조장을 여행하며 느낄 수 있는 멋진 경험이다.



물맛 좋은 동네 후시미. 맑은 샘물을 사케 시음 전에 담아 마셔보자



효고현 사사야마시의 호메이 양조장



이나타슈조 양조장 풍경

슈신칸 양조장에서 맛볼 수 있는 가이세키 요리

한잔으로 부족할 걸

교토의 남쪽 후시미는 옛 지명을 '후시미즈라' 했을 정도로 명수가 나는 동네다. 예부터 물맛이 좋아 유서 깊은 술도가가 많았다. 지금도 25개의 사케 양조장이 후시미의 물로 술을 빚는다. 그중 가장 이름난 곳이 우리나라에는 월계관으로 잘 알려진 '겻케이칸'이다. 무려 38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니 겻케이칸이 걸어온 길이 일본 사케의 역사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히코네성에서 떨어진 한적한 마을에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술을 짜는 양조장, 오카무라 혼케가 있다. 술덧을 후네라는 배 모양의 전통 기구에 층층이 쌓아 한 방울, 한 방울씩 사케를 추출한다. 당연히 자동 압축기로 추출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고, 얻는 술의 양도 적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시간을 들인 만큼 사케 향이 화사해지고 감칠맛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위스키처럼 오래 숙성시킨 빈티지 사케와 열처리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는 '나마자케'를 보면 알 수 있다. 160년 이상 양조장을 지탱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일교차가 큰 효고현에서는 술을 빚기 좋은 쌀이 난다. 효고현의 자량은 쌀만이 아니다. 에도 시대부터 사케 양조장에서 일하는 주조사들의 리더, 도지를 배출했다. 도지를 필두로 도지를 보좌하는 가시라, 누룩 만들기를 전담하는 다이시, 술덧을 책임지는 모토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일해 왔다. 효고현 북부에 위치한 단바의 도지는 특히 양조 실력이 좋기로 유명하다. 일본에 현존하는 도지 약 100명 중 40명이 단바 도지일 정도다. 효고현 사사야마에는 단바 도지주조기념관이 있다. 단바도지의 고집스런 외길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베시 나다구 롯코산 아래에도 이름난 양조장이 많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지면에 스며들어 미네랄을 적당히 함유한 '미야즈미'로 술 빚기 좋고, 산에서 불어온 찬바람은 발효를 늦춰 준다. 고베 향이 가까워 사케를 도쿄로 운송하기도 좋은 동네다. 약 270년 역사를 가진 슈신칸 양조장은 가이세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일식당 '사카바야시'도 갖추고 있다. 양조장을 둘러보고 느긋하게 나베 한 입과 사케 한잔을 맛보길 바란다. 아마 나도 모르게 '한잔 더!'를 외치게 될 테다.



사람의 얼굴을 닮은 도시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일, 모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일본의 도시에서는 오래된 전통과 현대 기술이 함께 어우러진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고층 빌딩이 가득한 대도시부터 오래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고즈넉한 전통마을, 다소 소박하고도 치열한 일상이 이어지는 소도시까지, 일본의 도시는 사람과 함께 숨 쉰다. 호흡을 같이 한다. 사부작사부작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정답고, 다정하고, 친절함 현지인들의 얼굴에 시선을 빼앗기는 건 어쩌면 여행자의 숙명 아닐까. 여행을 기억할 때면 어쩐지 그들의 따스한 미소와 시선이 잔상처럼 따라붙는다. 사람이 있기에 도시는 존재하고, 도시가 있기에 여행자들은 발걸음을 재촉한다.

무작정 발길이 이끄는 대로 향한다. 해맑은 웃음을 지닌 아이를 따라 즉흥적으로 한 끼 메뉴를 정하고, 한 쇼핑물의 옥상을 빌려 굳이 이름나지 않은 풍경을 전세 내기도 한다.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발견하게 되는 매력이 가득하다. 자꾸만 일본 도시 여행을 욕심 내게 되는 이유다. 이은지

신선한 고기 상태를 먼저 확인할 것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베규

고기 한점 육즙 팡팡 ❀ 고베 소고기 맛에 풍당

고베에서 한 끼 정도는 식탁에 소고기를 올려야한다. 이유가 있다. [Travie](#)

소고기도 눈처럼 사르르

고베에서 얻은 소고기 고베규는 다카야마의 히다규와 마츠자카의 마츠자카규와 함께 일본 3대 명품 쇠고기로 꼽힌다. 고베는 일교차가 커 부드러운 풀이 자라는 지역이다. 양질의 풀을 먹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며 자란 소들은 화려한 마블링의 부드러운 고기를 선물한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품질로 '고기가 입 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준다. 고베가 속한 효고현에서 나고 자란 소만이 최고 등급 A5를 받을 수 있다. 귀한 고베규를 얻기 위해 사육 단계에서 들이는 까다로운 정성과 규제 역시 명성이 높다. 품질 관리와 유통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쏟는 만큼 고베규는 비싸다. 그게 유일한 단점이다. 때문에 지갑을 열기 전까지 고민스러울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기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작은 불판에 한 점, 한 점씩 살짝 익혀 최대한 맛을 음미해보길.

그래도 값비싼 고베규가 조금은 부담스럽다면 훌륭한 대체품이 있다. 고베규의 바로 아래 등급인 다지마규를 맛보는 것이다. 고베규 아래 등급이라고는 하지만 다지마규 역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고급 소고기에 속한다.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고베에는 고베규와 다지마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여럿이다. 소고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을 코스로 선보이는 곳들도 있으니 마음에 드는 식당이 있다면 미리 마음속에 저장해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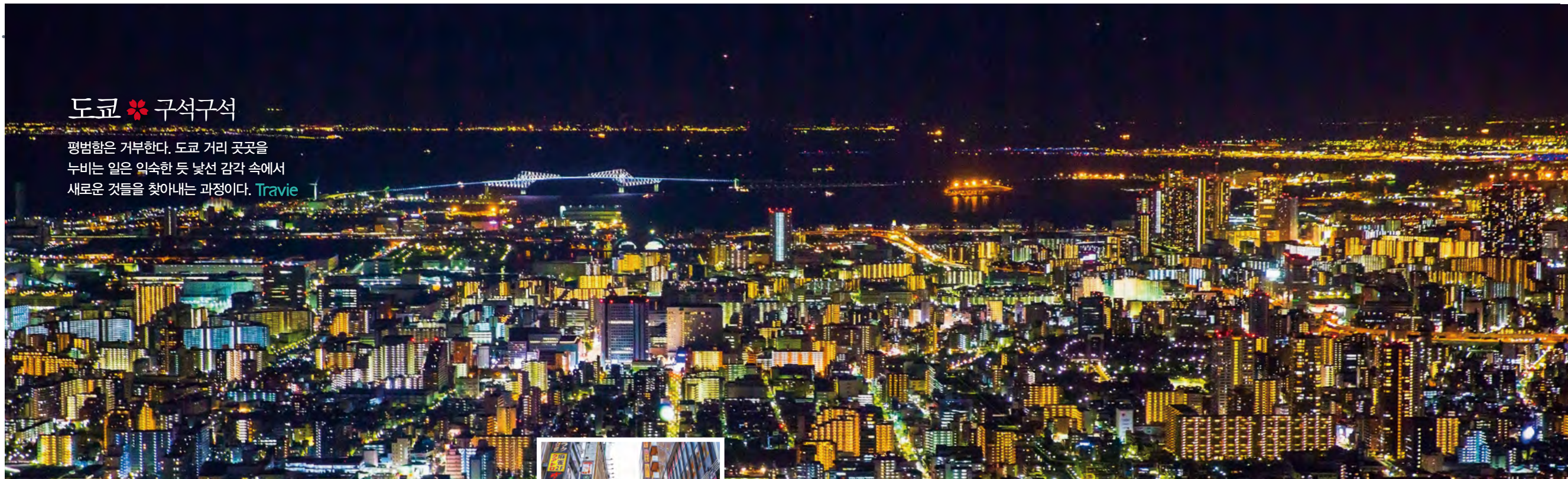


뜨거운 철판에서 구워낸 다지마규



도쿄 ✿ 구석구석

평범함은 거부한다. 도쿄 거리 곳곳을
누비는 일은 익숙한 듯 낯선 감각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Travie**



도쿄 스카이트리에서 바라본 야경



신주쿠 거리



아사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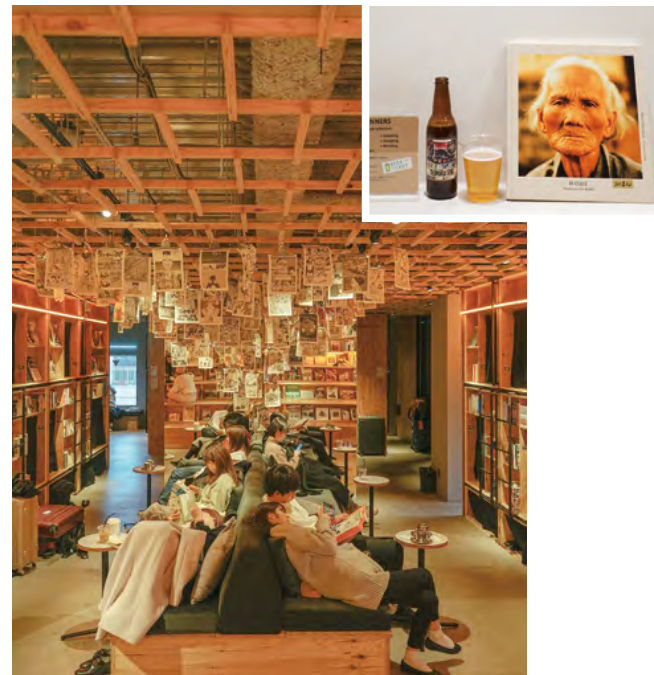


도쿄역 야경

도쿄의 첫인상

사람들이 바삐 걸음을 옮기는 변화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도쿄에 대한 편견이었다. 시간대별로 뻘뻘이 채운 일정은 어쩌면 편견의 산물이었다. 도쿄에 도착하는 순간 마음을 고쳐먹기로 한다. 아무렴 어떨까. 우연의 힘을 빌려본다. 열 손가락을 다 접고도 가고 싶은 곳은 여전히 많으니, 오히려 계획 없이 곳곳을 누벼보기로 한다. 뜨고 지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우연히 들이간 식당에서 점원의 추천을 받아 뜨끈한 우동 한 그릇으로 배를 채웠다. 정성껏 내온 정갈한 한 그릇을 받아든다. 후루룩 한 입 가득 소박한 행복이 들어찬다. 첫인상이 좋다. 조짐이 좋다. 무심코 지나치다 이끌리듯 한 베이커리에 들어갔다. 후식으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다.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다.

위로 올라다볼 때와 위에서 내려다볼 때. 도심의 풍경은 각도에 따라 얼굴을 달리하는 매력에 있다. 도쿄에는 랜드마크인 도쿄타워는 물론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스폿이 많다. 스카이트리, 롯폰기힐즈, 도쿄도청은 이미 이름난 명소, 도쿄도청 전망대에서는 반짝이는 야경이 발아래 자리하고, 롯폰기힐즈에서는 화색 빛 건물 사이로 빨강계 물든 도쿄타워가 존재감을 뽐낸다.



다양한 테마의 도쿄 책방

활자가 그리워질 땐 작은 책방

타지에서는 문득 손 놓았던 것들을 다시 잡고 싶어진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종이의 사각거리는 소리와 오래된 냄새는 추억을 가져다주니까. 도쿄에는 감성을 가득 담은 작은 책방이 가득하다. 진보초 책거리는 다양한 크기와 테마를 가진 서점들이 늘어서 있다. 10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오래된 서점으로 향했다. 계단을 따라 빙글빙글 올라가니 키를 훌쩍 넘는 고풍스러운 책꽂이에 원서가 가득하다. 책장 옆에 차곡차곡 쌓인 책들마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다양한 언어로 쓰인 책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테리어가 되니 마음이 절로 등둥 떠올랐다. 커다란 책장에서 빠져나와 고양이 서점으로 입장! 표지에 커다랗게 박힌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심장을 자극한다. 참고 참았던 환호성이 잇새로 새어나온다. 고양이 요가 책, 고양이 달력, 작고 아담한 내부를 고양이로 알차게 채웠다. 귀여움에 장사 없다더니 어느새 스르르 지갑이 열린다. 랜선 집사의 숙명이랄까. 먹고 자고, 아무리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을 터. 폭신한 소파와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며 책을 읽는 건 어떨까. 더없이 평화롭고 잔잔한 분위기다. 맥주 애호가라면 책맥을 즐겨보자. 공부와 일은 금물. 오롯이 책과 맥주를 즐기며 잠시 현실을 잊어본다. 술에 취하고, 책에 취한다.



오사카에서 한 걸음 더, 이유 있는 당일여행 ③

자꾸 눈길이 간다. 시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매력의 소도시들이 가득하니
자꾸만 아른거릴 수밖에.
하루면 충분한 오사카 소도시 여행. **Travie**

이국적인 분위기가 가득 ① 고베

항구도시 고베는 이국적인 분위기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도심 북쪽 언덕에 위치한 기타노이진칸은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다. 고베 개항 이후 외국인인 살던 집들이 줄지어 있는 곳으로, 독일인 무역상의 집 가자미도리 노야카타와 초록색 건물에 베란다가 인상적인 미국 총영사 저택을 만날 수 있다. 1907년 지어진 목조주택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도 단연 시선을 끈다. 기타노이진칸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다.

커피와 케이크의 도시 고베에서 배를 채워볼까? 그렇다면 대표 상점가인 모토마치로 향하자. 1952년 문을 연 에비앙 카페에서는 숙련된 바리스타가 알코올램프를 사용해 정성스레 내린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쉬폰케익과 치즈케익도 인기. 황홀한 야경도 빼놓을 수 없다. 하버랜드는 고베의 랜드마크인 포트타워 야경을 감상하기에 제격이다. 까만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붉은 조명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베 하버랜드 기타노이진칸(위) 모토마치(아래)

일본의 첫 유네스코 유산 ② 히메지성

히메지성의 아름다움은 일본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17세기 초 일본 건축을 대표하는 목조건축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인공이다. 하얀 외관이 마치 춤을 추며 서 있는 백조를 닮았다고 해서 '백로성'이라는 우아한 애칭이 붙여졌다. 국보만 해도 8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망루를 비롯한 문과 벽까지 성 곳곳이 중요문화재다. 배우 톰 크루즈가 주연한 <라스트 사무라이>를 비롯해 여러 영화 배경으로도 등장하기도 했다. 화재로 손실되기 십상인 목조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히메지성은 전통 공법을 이용해 자신을 지켰다. 외부를 회반죽으로 얇게 여러 번 덧칠하는 '시로싯쿠 이소누리고메즈쿠리' 공법으로, 회반죽 두께만 해도 무려 3cm라고. 덕분에 히메지성은 온갖 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성 중심인 대천수 건물은 지상 6층, 지하 1층의 7층 구조로 웅장함을 더했다. 찬찬히 돌아보다 혼마루에 다다르면 천수각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을 수도 있다.



효고현 히메지성



오카야마 고리쿠엔

오카야마 신사

오카야마성 오시로 파르페

햇살 한 조각 ③ 오카야마

날씨가 좋아 '햇살의 땅'이라고 불린다. 햇살이 좋으니 과일도 맛있다. 오카야마 곳곳에서 모모(복숭아)를 만날 수 있는 이유다. 양중맛은 분홍빛을 품은 복숭아 아이템들은 오카야마를 대표한다.

오카야마에는 '모모타로' 이야기가 전해진다. 복숭아에서 나타난 남자아이가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다. 모모타로의 모델로 알려진 기비쓰시코노미코토를 기리는 사당인 기비쓰신사부터 JR 오카야마 역 앞을 지키는 모모타로 동상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매년 여름에는 모모타로 축제도 성대하게 열린다.

다음 행선지는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인 고리쿠엔이다. '근심을 먼저 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누린다'는 이름 뜻과는 달리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풍광에 즐거움 먼저 누리고 싶어진다. 구석구석 물길을 따라 인공으로 만든 섬과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오카야마성은 첫인상부터 남다르다. 까만색에 군데군데 금색이 칠해진 일명 '까마귀 성'은 에도시대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1층에 있는 오시로차야에서 오카야마의 명물 과일을 아낌없이 넣은 오시로 파르페를 맛보는 일도 잊지 말자.



구라시키 미관지구 운하



반짝이는 전통마을 ✿ 구라시키 미관지구

하얀 벽이 반짝이고, 운하가 잔잔히 흐른다. 에도시대부터 쇼와 초기까지 일본 전통가옥이 고스란히 자리를 지킨다. 오카야마현의 또 다른 얼굴, 바로 구라시키 미관지구다. [Travie](#)

인력거 타고 영화 속으로

미관지구를 가로지르는 운하에는 사람과 건물이 담겨있다. 예스러운 건물이 투영된 물이 평화롭게 흘러가니 마치 한 폭의 명화 같다. 나룻배에 몸을 싣고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열 명 남짓 탈 수 있는 배에 올라타 이리저리 흔들리니 마음 한 편도 출렁이기 시작한다. 운하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다 보면 길게 앞을 늘어뜨린 버드나무를 만날 수 있다. 그야말로 운치의 절정. 아마추어 화가들이 버드나무 아래 앉아 미관지구의 모습을 부지런히 담아낸다. 아름답고 평화롭다. 잠시 누군가의 발을 빌려도 좋다. 구라시키 미관지구에는 환한 미소와 듄직한 어깨를 가진 인력거꾼이 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스포츠마다 생생한 설명을 전해주는 구라시키가 보다 친숙해진 느낌이다. 일본어를 몰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스마트폰 번역기로 친절히

알려줄 테니.

인력거에서 내려 여유로이 산책을 즐기다 보면, 담쟁이덩굴 옷을 입은 아이비스퀘어가 눈길을 끈다. 옛날 방직공장이 전시장, 카페, 도자기 체험장으로 재탄생했다고. 100년 넘는 전통가옥을 개조해 만든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 유린안에는 늘 사람이 북적인다.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시아와세 푸딩이 이곳의 대표 메뉴. 스마일이 그려진 푸딩을 보고 있자니 잠시 머무는 찰나에도 행복이 가득하다. 엉덩이 모양의 모모 주스와 밥에 생달걀을 넣고 간장을 뿌려 먹는 타마고 카케고항도 인기 메뉴다. 음식뿐만 아니라 메뉴판도 깜찍하니, 역시 여기저기서 귀엽다는 탄성이 가득. 즐거움이 가득 담긴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역시 행복은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비스퀘어



구라시키 미관지구 풍경



구라시키 미관지구 풍경

일본서 만나는 모네, 오히라미술관



마을 한가운데서 그리스 신전을 만났다. 구라시키 미관지구 필수 코스인 오히라 미술관이다. 1930년에 문을 연 일본 최초의 서양식 근대 미술관으로 모네, 피카소, 고갱, 세잔 등 세계적인 화가들의 원작을 만나볼 수 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낯설 수도 있는 이 작은 도시에 세계적인 작품들이 머무르게 된 이유는 뭘까. 궁금함을 가득 품은 채 미술관 안으로 들어섰다.

답은 오히라 가문에 있다. 오히라 가문은 방적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던 구라시키 지역 대지주다. 그들은 부를 쌓는 데만 치중하지 않고 대대로 사회에 관심을 기울였다. 고아원과 학교를 세우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회도 설립했다. 오히라미술관 설립에 공헌한 사람이 바로 장학회 출신인 고지마 토라지로다. 당시 오히라 가문을 이끌었던 오히라 마고사부로는 고지마 토라지로의 평생 친구이자 후원자였다. 토라지로는 마고사부로의 지원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하게 됐다. 마고사부로는 유학 경비는 물론 토라지로가 거장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모네의 수련도 토라지로가 직접 찾아가 구입한 작품. 토라지로가 세상을 떠난 뒤 마고사부로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오히라미술관을 열었다.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둘의 깊은 우애를 떠올렸다. 어운과 올림이 가득했다.

구라시키에는 청바지 원단으로 만든 개성 넘치는 옷가게가 즐비하다. 구라시키는 1960년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청바지 원단을 생산한 지역으로, 길거리 여기저기서 데님을 발견할 수 있다. 옷과 소품은 물론 데님에서 영감을 받은 데님 아이스크림도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일본 데님의 고장에서 특별한 사진 한 장을 남기기에는 충분하다.

Experiences in JAPAN

Nature



위로를 건네는 자연의 손길

잊지 못할 여행의 순간들을 떠올려본다. 여행지는 제각기 다양해도, 배경은 대체로 도심보다 자연이다. 유명 맛집에서 대기표를 받고 1시간 넘게 줄을 섰을 때보다,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 속에서 흠내음 맡으며 가쁜 호흡으로 자전거를 뒀던 기억이 더 진하다. 일상에서도 종종 그렇다. 복잡한 내온사인 간판보단 해질녘의 은은한 석양빛에, 화이트 대리석으로 장식된 쇼핑몰 대신 새하얗다 못해 푸른 설원에 마음이 이끌린다. 꺾꺾발까지 일구진 못하더라도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을 때가 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인간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 영 소질이 없는 존재일 지도 모르겠다고. 상대를 위하는 말들은 의외로 텅 비어있을 때가 많고, 또 자주 빛나간다. 복적이든 군중 속에서 고독감이 심화되는 순간, 자연이 주는 위로에 몸을 맡겨야 할 타이밍이다. 고요하고 한적한 자연의 풍경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 지난해 후쿠오카의 한 해변에서 멍하게 서있을 때였다. 휘몰아치던 바닷바람도 수고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다. 양팔에 자꾸만 파고들던 모래알들도 지금은 그리운 추억으로 남았다. 언젠가 또 여행이 시작된다면, 그때의 여행지는 망설임 없이 자연이다. **곽서희 기자**

노을빛으로 물든 오키나와 고타마 섬



몸에 좋은 여행 ❀ 시나노마치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1위를 다투는 장수 도시, 시나노마치는 건강 여행의 성지다.
기대 수명 100세 시대, 시나노마치에서 여행으로 건강해지는 비법을 살펴보자. **Travie**



구로히메 산과 메밀밭

1등 중에 1등

시나노마치는 일본 열도 나가노현과 니가타현의 경계에 위치하는 작은 마을이다. 시나노마치는 건강 여행의 성지로 주목받은 지 이미 오래다. 시나노마치가 위치한 나가노현이 세계최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도 1위를 다투는 장수 도시임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시나노마치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치유의 숲' 트레킹 코스를 개발했고, 의료기관과 함께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트레킹 전에 혈압, 피부 온도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다.

시나노마치의 대표적인 치유의 숲 코스는 총 세 가지다. 오지가 연못 둘레를 걷는 '오지카이케 코스(1.2km)', 산길을 따라 노지리 호수까지 걷는 '조노코미치 코스(2.5km)', 깊은 산속의 숲을 지나 나에나 폭포까지 걷는 '나에나타키 코스(7km)'가 그것이다. 나에나타키 코스를 빼면 모두 초심자가 걸을 만한 거리다.

검은 공주가 사는 산

오지카이케 트레킹 코스는 삼나무 숲과 작은 폭포, 숲속에 비밀스럽게 자리한 연못 주변을 걷는 코스다. 코스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넓은 목장이 펼쳐지고, 그 뒤로는 구로히메산이 보인다. 이산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한다.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검은 용에게 시집을 가는 조건으로 폭우에 잠길 위기에서 마을을 구출했던 공주의 이야기다. 마을 사람들은 공주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산을



마다라오산에서 본 노지리 호수



숲속에 공공 숨겨져있는 비밀스러운 오지카이케의 연못



조노코미치에서는 3m가 넘는 키의 코끼리 화석이 발견됐다

‘검은 공주(구로히메)’라고 불렀다.

시나노마치 사람들은 구로히메 산을 ‘시나노의 후지산’이라고 추켜세운다. 납작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균형 잡힌 산세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해발고도 자체는 900m로 그다지 높지 않고, 시나노마치 자체가 평균 해발 800m의 고원 분지라 정상이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 너도밤나무 숲을 통과하는 서쪽 등산로가 인기이며, 오지카이케 트레킹 코스는 동쪽 고원에서 시작한다. 구로히메 동화관을 트레킹 기점으로 삼으면 된다.

코끼리의 작은 길

조노코미치 트레킹 코스는 숲길과 호반길을 모두 걸어볼 수 있어 매력적이다. 울퉁불퉁하다가도 평탄해지고, 음지와 양지가 골고루 뒤섞이며 나타나는 점도 재미있다. 구간마다, 트레이너마다 숲을 즐기는 방법이 다르다. 삼나무 아래서 단전호흡을 하거나 외기욕을 하기도 하고, 측석에서 오키리나를 연주하기도 한다. ‘조노코미치’라는 이름은 ‘코끼리의 작은 길’이란 뜻이다. 이 귀여운 이름의 연원은 산길을 지나 호숫가에 닿으면 알게 된다. 트레킹 코스가 끝나는 지점에 4만년 전 빙하시대 코끼리 화석 발굴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3m가 넘는 키에 상아 길이만 2.4m에 이르는 거대한 코끼리 화석이 발견됐다. 호반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코끼리 모양인 것은 이 때문이다. 흥미가 생긴다면 호숫가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나무만 코끼리 박물관에 기보자. 코끼리 화석과 실물 크기 표본을 전시하고 있다.



카즈라바시



이야 계곡과 오쥬 누는 아이 동상

숨겨진 협곡 모험 ✿ 시코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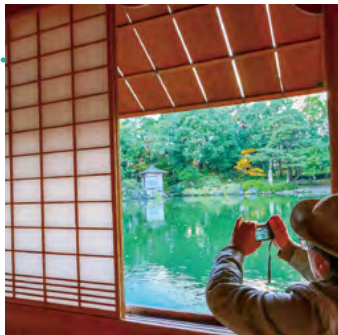
일본 열도를 이루는 네 개의 주요 섬 가운데 가장 작은 섬 시코쿠.
이 작은 섬에는 공공 숨겨진 협곡들이 살아 숨 쉬고 있다. [Travie](#)

모험은 오보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보케역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숨을 크게 들이마실 만큼 좋은 기운이 가득하다. 오보케는 2억년에 걸쳐 형성된 협곡 지대라 했다. 나룻배를 타고 협곡을 거슬러 유람을 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산자락 높은 곳에 올라 협곡을 조망할 수도 있다. 버스가 드문드문 다니는 산골마을이지만 역 앞에 항상 대기 중인 택시를 이용해 한결 수월하게 협곡을 둘러볼 수 있다.

택시를 타고 구불구불 산길을 달려 카즈라바시에 다다른다. 카즈라바시는 협곡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다. 깊은 산 속에서 넝쿨을 늘어뜨리며 자라나는 다래나무로 엮였다. 엉금엉금, 주춤주춤,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발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은데 십여 미터 아래로 빠른 물살을 타고 흐르는 계곡을 보니 더 아찔하다. 후들거리는 것이 이 다리인지, 내 다리인지.

다시 택시를 타고 산길을 탄다. 일본어 히라가나의 ‘히(히)’자 모양으로 물길 이 흐르는 계곡을 지나 이야 계곡까지 왔다. 이야 계곡은 인구 밀도가 낮고 시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돼있다. 이야 계곡을 내려다보니 웅장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동시에 끝이 안 보일 만큼 바닥이 까마득하다. “이 계곡에서 떨어지면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스님을 부른답니다.” 택시 기사와 농담에 어쩔지 등골이 오싹해진다.

아득히 이야 계곡이 내려보이는 벼랑 끝 바위 위에 조각상 하나가 눈에 띈다. 오쥬 누는 아이 동상이다. 아주 오래 전 산골마을 아이들이 이 바위에 올라 오쥬 누기 시험을 벌이곤 했단다. 어린 날의 치기로 치부하기엔 꽤나 비장했을 시험이었을 텐데 어째서인지 입가엔 미소가 가시지 않는다. 그래, 이만한 높이에서 오쥬 줄기 시원하게 뻗을 줄 아는 꼬마라면 골목대장 자리 정도는 충분히 차지할 만하겠다. 두려움 없이 자연을 즐겼던 꼬마들의 모습이 아른 거려 다시 한 번 미소가 번진다.



요코칸 정원에서는 카메라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연못을 담은 한 폭의 그림 ❀ 후쿠이시

간사이 북쪽, 일본 중부에 속하는 후쿠이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을 통틀어 호쿠리쿠 지역이라 부른다. 이중 후쿠이현청의 소재지인 후쿠이시는 일본 특유의 차분하고 정갈한 감성을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Travie**

열차를 타고 후쿠이역에서 하차하자마자 자연 속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열망에 요코칸 정원으로 발길을 내딛었다. 잘 가꿔진 나무와 꽃들이 반기는 요코칸 정원은 후쿠이의 번주였던 마쓰다이라가의 별장이다. 지금은 허물어져 후쿠이시청이 된 옛 성에서 겨우 400m 떨어진 거리다. 문헌상에 이곳이 처음 등장한 것은 1656년으로 36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당시의 모습을 유지한 채 후쿠이를 지키고 있다.

요코칸은 크고 화려한 정원과는 거리가 멀다. 작은 연못과 후원, 나란히 지은 건물 두 채가 전부라 한 바퀴 빙 둘러보는 데 30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볼수록 오목오목 아름답다. 작은 목각 상자 속에 든 화과자 같다거나 할까. 작은 정원 안에 서로 다른 풍경을 조화롭게 배치한 감각이 놀랍다. 요코칸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못이다. 별장 본채인 고자노마가 연못에 바짝 붙어 있어 등실 뜬 배치럼 보이고, 연못의 물길은 정원을 휘감아 돌며 여러 개의 시내를 이룬다. 물은 바위와 꽃, 건물 등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을 관통하

는 주체다.

두 채의 건물을 하나로 합친 본채에는 10여 개의 방이 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영주의 생활상이 좀 더 생생하게 그려졌다. 영주가 창밖 풍경을 감상하던 방에 잠시 앉아 봤다. 과연 앉아 보니 서 있을 땐 몰랐던 창밖 풍경이 단정하게 펼쳐졌다. 삼나무로 만든 구름 모양 창틀 안에는 아까 지나온 정자와 돌탑, 찰랑이는 연못이 한 폭에 담겨 있었다. 가을에는 단풍잎이, 여름에는 창포꽃이 이 풍경을 수놓을 것이고, 봄과 겨울에는 매화꽃과 눈송이가 하얗게 흩날릴 것이었다. 자연이라는 화폭에는 어떤 예술 작품도 흉내 낼 수 없는 무수한 변화가 있다. 방금 전만 해도 눈앞에 있던 청둥오리 한 마리가 어느새 화폭을 빠져나갔다.



크기는 작아도 고즈넉한 멋을 뽐내는 요코칸 정원

Experiences in JAPAN

Art



예술과 일상, 경계를 허무는 여행

오카와치야마 담벼락에 놓인 도자기

말하자면 '예술 알레르기'가 좀 있었다. 미술에는 문외한이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미술관을 멀리했다. 여행 일정에서도 갤러리와 박물관은 제외시켰다. 꽤 무자비하고, 약간은 무식한 결단이었다. 이런 나에게 처방전을 내려준 건 일본의 한 마을이었다. 여행 중 우연히 들른 그 마을에서 예술이 일상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됐다. 그곳에선 어디서든지 쉽게 작품을 마주할 수 있었다. 길거리, 신호등, 우체통 옆, 심지어는 공중화장실 앞에도 조각품이 설치돼 있었다. 그곳을 여행하면서 미술관과 일상공간의 딱딱한 경계는 허물어졌다. 예술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예술을 보면 지역이 보인다. 예술가들의 작품에는 흔히 자신이 타고 자란 고향에 대한 사랑이 묻어있기 마련이다. 지역의 곳곳에 예술의 흔적이 유적, 또는 폐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지역이 보이면 애정이 생기고, 애정은 곧 그리움과 추억으로 변한다. 그렇게 여행은 한 단계 깊어진다. 나는 이제 보다 깊고 진득한 여행을 위해, 일정에 미술관을 넣어보려 한다. 처방전의 약효가 나타나는 모양이다. **곽서희** 기자





도자기 기념품과 따뜻한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이와이 가마의 하나 카페



우에다 풍 사진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우에다 쇼지 사진미술관

감동이 프레임 안에 ❀ 돗토리

돗토리현을 돗토리 사구로만 기억한다면 섭하다. 예술에 대한 열망과 애정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돗토리현이기 때문이다. [Travie](#)

요나고에서 다이센산으로 오르는 중간에 위치한, 우에다 쇼지 사진미술관은 돗토리현의 수많은 관광지 중에서도 꼭 둘러봐야 할 명소다.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 거대한 빙하처럼 보이기도 하는 미술관은 다이센산을 바라보고 서 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한곳에서 예술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도 매번 새로움을 찍어야 하는 사진을, 사카이미나토 출신의 '우에다 쇼지'는 죽을 때까지 돗토리현에서 활동했다. 물론 전시실에 들어가 보면 해외여행 중 남긴 작품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주로 돗토리 사구를 비롯해 돗토리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

피사체를 마치 오브제처럼 배치한 사진은 '우에다 풍(Ueda Cho)'이라는 사진 연출법을 남겼다. 짧은 단발의 소녀들이 무심히 서 있는 흑백 사진은 몽환적이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어쩐지 아련한 그리움이 전해졌다. 나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지는 기분이 든다. 다이센산이 보이는 큰 창은 기념사진을 찍는 곳이다. 우에다 쇼지의 피사체가 된 것처럼 동그란 모자 아래서 개성 있는 포즈로 사진을 남겨보자. 미술관 투어의 마침표다.

돗토리현은 도자기로도 유명하다. 그 명성은 우연히도 스타벅스에서 발견했다. 돗토리 사구와 푸른 바다를 새겨 놓은 것만 같은 도자기 머그잔이 눈에 띄었다. 꽤나 비싼 가격이었지만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특별하니까. 공장에서 찍어 낸 일반적인 시티 머그잔과는 완전히 다른, 핸드메이드 도자기라 맘에 들었다.

돗토리시 바로 옆 이와미군에는 50년 넘게 도자기를 만들어 온 '이와이 가마'가 위치한다. 이와이 가마가 얼마나 유명한지 물었더니, '산인 관광열차의 세면대도 이와이 가마의 작품'이라고 답했다. 돗토리현의 민예품 중 상징성이 높다는 뜻이다. 입구에서 아키타견, '하나'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하나는 이와이 가마의 카페 이름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투박하고 묵직한 툇배기에 담긴 유바조스이에는 건강을 고려한 주인장의 마음이 담겨 있다. 걸쭉한 영양죽 같다. 돗토리 바다에서 나는 해조인 모즈쿠와, 두유와 콩가루를 끓일 때 생기는 얇은 껍질을 말린 식자재인 유바를 아낌없이 넣었다. 바다와 흙의 단백질이 한군데 어우러진, 100% 돗토리 향토음식이다. 담백한 맛이 수수한 도자기와 닮았다. 아틀리에에는 다양한 도자기 컬렉션이 있어서 기념품을 살 수도 있다.



오카와치야마의 도자기에는 도공들의 흔과 숨결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도자기의 옛 실리콘밸리 ✿ 오카와치야마

340년 전, 오카와치야마는 도자기의 실리콘밸리였다.
도공들은 이곳에 모여살며 도자기에 자신의 예술적 숨결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숨결의 흔적을 따라가는 일이다. [Travie](#)

도자기 마을로 유명한 이마리시에서도 가장 안쪽의 산간벽지에 자리해 있는 오카와치야마. 이 작은 오지마을에 도착하니 바람결을 타고 도자기 풍경 소리가 들려온다. 마을에 들어서려면 도자기 다리를 하나 건너야 한다. 도자기로 화려하게 장식한 다리 하나만으로도 이곳의 예술적 분위기는 이미 짐작된다. 숨겨진 가마터, 즉 '비요의 마을'이라는 별칭이 잘 어울린다.

다리를 건너니 도자기 타일로 크게 만든 마을 지도가 보인다. 도공들을 지켰던 관문, 도공의 집, 가마터, 도공의 묘, 번요 공원 등이 표시돼 있다. 나베시마 가마를 포함해 30여 개의 가마가 곳곳에 있어 도공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임을 알 수 있었다. 34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품은 곳인 만큼 조용하고 정갈한 분위기라 덩달아 차분해진다.

1675년 사가 나베시마 영주는 도자기의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유지하려 애썼다. 당시 도자기 산업은 서양에서의 폭발적 반응에 힘입어 번성기를 맞았다. 도자기 제작 기술이 있으면 팔자를 바꾼다 할 정도로 큰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당시에 도자기 기술은 현대 IT 기술과 맞먹을 만한 첨단 기술 산업이었던 셈이다. 때문에 영주는 그 기술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아리타에서 험난한 지형의 오카와치야마로 가마를 옮겼다. 입구에 관문을 설치하고 도공들을 감시했다. 1871년까지 이곳에 일반인은 출입도 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다이묘나 장군, 조정에서 바치는 헌상품으로 '나베시마 도자기'라 불렸다.

경사진 마을길을 따라 산책에 나섰다. 마을 전체가 도자기 전시 및 판매장이지만 상업화된 느낌보다는 예술가의 작은 공방에 들른 느낌이다. 오카와치야마의 가옥을 살펴다 보면 명패를 대신해 도자기 오브제를 세워 둔 것을 볼 수 있다. 도공들이 사는 도자기 마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만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도자기를 만든다는 도공의 자세를 느낄 수 있다. 비요 마을에서 본 도자기는 백자에 빨강, 초록, 노랑 등으로 색을 입혀 화려하다. 이는 이마리 도자기의 특색이다. 1650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이마리아키를 처음 수출하면서 유명해졌는데 당시 유럽인들이 좋아했던 중국풍이나 유럽의 취향을 반영해 제작됐다. 또 아리타 도자기가 이마리 항구를 통해 수출되면서 통칭 이마리아키가 되었다 한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어귀에 다다르니 논밭이 눈에 들어온다. 벼가 노랗게 익어 간다. 마을 입구에 놓인 도자기 다리에 충충 박힌 꽃잎처럼, 자기를 뜨겁게 구워 내는 가마 속의 불길처럼 붉은 해가 마을을 감싸고 있다.



도자기와 도공들의 역사가 곳곳에 깃들어있는 오카와치야마



마쓰시마 군도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행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행지가 있다. 자연, 미식, 온천, 트레킹 등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온전한 휴식에 빠져드는 그러한 곳. 일본은 곳곳의 놀라운 자연과 살가운 환대 문화, 진귀한 재료로 뽑낸 음식 등으로 다채로운 여행을 선사한다. 복잡한 빌딩 숲을 뒤로하고, 초록색으로 물든 산과 숲,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룬 영롱한 바다에서 자연을 만끽한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가 치유하고, 지역별 별미로 미각을 깨우고, 산림을 거니는 등의 특별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운다. 지역도 한두 곳이 아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조금만 눈을 돌리면 또 다른 보석 같은 공간에서의 힐링도 가능하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심을 방해하는 것들과 잠시 단절한 채 온전히 일본의 섬 속에 묻혀보는 건 어떨까. 여행자 마음에 신선한 영감을 불어넣을 휴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성균 기자**



족욕장

우레시노에서 꼭 맛봐야 할 유도후 정식

4가지 기쁨으로 채워진 **우레시노**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꼭 해봐야 할 게 있다. 미인 온천으로 유명한 사가현 우레시노에는 온천을 비롯해 무려 4가지가 준비돼 있다. 하루만 머물기에 빠듯한 이유다. **Travie**

우레시노에는 온천, 녹차, 두부, 도자기 4가지 기쁨이 있다. 우레시노라는 이름 자체가 이곳 강에서 온천이 솟는 것을 발견한 신공 왕후가 그 온천수로 병사들이 치유되자 '아, 기쁘다!(우레시이)' 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우레시노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사가현의 남쪽에 있다. 우레시노강에는 두루미가 자주 찾아와 '두루미가 즐기는 온천' 이라고도 불린다. 일본 3대 피부 미인 온천 중 한 곳으로 손꼽힌 우레시노 온천은 1,3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하루 3,000톤의 용출량을 자랑하며 온천 수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온천수에 포함된 다량의 나트륨이 피부를 제거해 온천욕이 끝나면 미끈미끈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어렸을 때 목욕탕에 다녀오면 엄마를 졸라 바나나우유를 먹어야 비로소 목욕이 끝이 난 것처럼 우레시노에서는 녹차를 즐겨야 한다. 우레시노는 에도시대부터 차 재배를 시작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령 300년이 넘는 큰 차나무가 있을 만큼 녹차도 유명하기 때문이다. 료칸이나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씹씹하면서 구수한 녹차 한모금의 여유를 빠트리지 말자. 달달한 화과자나 디저트를 곁들이면 온천욕을 제대로 마쳤다고 할 수 있다.

노곤해진 몸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맛있는 음식도 필수다. 이곳에서는 온천 유도후도 꼭 한 번 맛봐야 한다. 유도후는 다시마를 우려낸 뜨거운 국물에 두부를 살짝 데쳐 양념장에 찍어 먹는 요리다. 유명 맛집도 즐비하다고 하니 취향에 맞춰 선택만 하면 된다.

마지막 기쁨인 도자기는 이곳에서 40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도자기마을 '요시다사라야'에서 찾을 수 있다. 도자기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 구매하는 요시다사라야 트레저헌팅에 참여하면 된다. 한적한 시골 뒷골목에 있는 곳곳의 도자기 가게에서 밥공기부터, 주전자, 술잔, 물컵 등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료칸

치유와 상생의 길 ❀ 미야기올레

미야기현 올레길을 걸었다. 바다는 고요했고 숲은 여전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Travie**



제주의 외돌개와 비슷한 바위 '오레이시'



미야기올레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들

상처를 보듬어 걷는 시간 **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

치유와 상생의 길로 알려진 미야기올레는 미야기현의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을 가득 담았다. 코스는 게센누마·가라쿠와, 오쿠마쓰시마, 오사키·나루코온천, 토메 총 4가지가 준비돼 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을 마주한 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와 일본 삼대 절경 마쓰시마를 바라보며 크고 작은 섬마을을 지나는 오쿠마쓰시마 코스가 미야기올레의 시작이다.

시작은 10km 거리의 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다. 가라쿠와반도 비지터센터를 시작으로 오사키 미사키 곳, 쓰나미이시, 아에몬자카, 가라쿠와 고텐 마을길, 사사하마 항구, 한조로 이어진다. 게센누마 앞바다는 일본 3대 어항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인 게센누마는 예부터 풍부한 해산물을 전국 각지로 보내면서 크게 번성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바다는 마냥 복덩이만은 아니었다. 최근 몇 번은 딱 37년을 주기로 대지진과 쓰나미가 들이닥쳤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은 신사를 세워 풍어와 안녕을 기원했다. 절벽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우거진 숲을 헤쳐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를 올렸지만 바다는 무심했다.

그럼에도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게센누마를 지키고 있다. 결국 그들이 신사에 다녀오거나, 포구에 나가거나, 이웃을 만나기 위해 오갔던 길은 미야기올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따뜻한 길이 된 셈이다. 한 곳을 딱 집어 최고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길이 아름답지만, 압도적인 풍경은 단연 오사키미사키 곳이다. 일본 지질 100선에 뽑힌 대표 명소로, 2억5,000만년 동안 켜켜이 쌓인 퇴적암과 태평양의 거센 파도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풍경이다.

숲길도 다시 울창해졌다. 몇 년 전, 수십 층의 고층빌딩 높이에 버금가는 파도가 덮쳤던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제 모습을 되찾았다. 자연은 다시 숲을 만들었고, 그새 또다시 쌓인 나뭇잎은 이 길을 폭신하게 지탱하고 있다. 과거의 상처는 그렇게 조금씩 아물어 갔다. 울창한 숲 사이로 잔잔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번갈아 나타난다. 나무로 열기설기 만든 안내판이 눈앞에 등장하는데, '쓰나미이시'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다. 2011년, 게센누마를 덮쳤던 쓰나미가 끌어다 놓았다는 그 바위들이다. 무게만 해도 150톤에 육박하는 바위가 세 개, 그보다 작은 것까지 합치면 더 많단다. 그 거대한 바위들이 파도의 힘만으로 육지까지 밀려왔다.

길은 마을 어귀에서 두 갈래로 나뉜다. 가케하마를 지나 해안 쪽으로 걷는 길이 A코스, 마을을 둘러 사사하마(항구로 가는 길이 B코스)다. 바다를 쉬이 포기할 수는 없으면 A코스다. 몽돌이 파도에 구르는 소리가 일정 간격으로 고막을 두드렸다. 청명한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포구를 나서는 어선 한 척이 푸른 캔버스 위에 한 줄기 그림을 더해준다.



마쓰시마 군도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마쓰시마의 속살 오쿠마쓰시마 코스

에도 시대의 유학자 하야시 가호가 일본 3대 절경으로 칭송한 마쓰시마는 260여 개의 섬이 바다에 웅기종기 모여 있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미야기의 두 번째 올레길은 이곳에서 탄생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마쓰시마시는 아니고, 마쓰시마 군도를 아우르는 지역에서 가장 깊은 곳, '오쿠'마쓰시마다. 마쓰시마의 속살을 제대로 둘러볼 수 있는 길이다.

오쿠마쓰시마 코스는 순환형 코스다. 10km에 달하는 길이 오쿠마쓰시마의 주요 포인트를 거쳐 되돌아 나오게 된다. 여행자 커뮤니티센터 '세루코홉 아오미나'가 출발점이자 종점으로, 특산물과 간식을 판매하는 매점과 무료 족욕 시설을 갖추고 있는 휴식처다. 세루코홉 아오미나에서 시작된 길은 바로 앞에 솟은 오타카모리산에서 갈린다. 파란색 화살표가 산 중턱에서 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정방향 코스를, 빨간색 화살표는 산 정상으로 여행자를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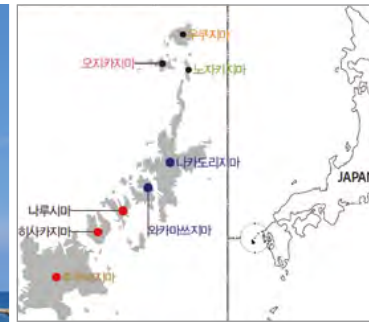
먼저 오타카모리산을 넘는다. 숲길을 걷는 내내 동백나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에 등장하는 건 마쓰시마의 풍경. 그것도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뒤의 평온함이 가득한 마쓰시마만의 바다다. 섬 끄트머리에 서 있는 붉은 도리이와 주변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그리고 파란 하늘을 하얗게 물들인 구름이 수면에 비치며 더욱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마을을 지나 작은 언덕을 하나 더 오르내린다. 마을 어귀와 논밭의 둑, 자연이 만들어 낸 오솔길이 차례로 등장한다. 바다를 메우고 제방을 쌓아 만든 밭에는 마침 미야기의 특산물인 풋콩이 무르익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제주의 용머리해안을 닮았다는 바위 '신하마미사키'를 지나면 한동안 평지를 걷는다. 길은 오타카모리산으로 향한다. 오쿠마쓰시마 코스를 걷는 내내 만나 볼 수 없던, 가파른 경사와 거친 산길이 연달아 나타난다. 정상에 마련된 데크에 올라선 순간 모든 힘들이가 사라진다. 마쓰시마만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파노라마로 펼쳐지는데, 오쿠마쓰시마 코스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작품을 마주하게 된다.



오쿠마쓰시마 코스 풍경과 미야기올레 시스템



고토 열도는 자연계로도 즐길 수 있다

우리가 고토로 간 이유 ❀ 고토열도

고토에는 보고만 있어도 편안해지는 색, 파랑과 초록이 가득하다. 바다 풍경이 예쁜 국립공원이 즐비하고, 한 번쯤 올라보고픈 산도 있다. 마음의 위안을 줄 특별한 공간은 덤이다. **Travie**

성지순례의 한 코스로만 알려진 고토열도에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비경이 곳곳에 숨어있다. 특히 자연의 품에 안겨 신선한 영감을 받고 싶은 여행자에게 제격이다. 고토는 일본 나가사키현의 서쪽 140여 개의 유·무인도가 이어진 열도다. 주요 섬은 5개로, 나카도리지마와 와카마쓰지마를 '위쪽 고토'를 뜻하는 가미고토라 부르고, 후쿠에지마·히사카지마·나루시마를 '아래쪽 고토'라는 뜻으로 시모고토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지역이 사이카이국립공원에 속해 있을 정도로 바다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또 섬이라서 보존될 수 있었던 깨끗한 자연과 고립감을 토양으로 생명력을 키워 온 기독교공동체 문화, 섬 특유의 느슨한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행법도 다양하다. 캠핑, 로지 등의 베이스캠프를 마련해 한곳에서 오래 머물거나, 자전거를 대여해서 일주할 수도 있다. 렌터카로 좀 더 편안한 여행도 가능하다. 곳곳에 바다가 가까우니 스노클링, 낚しも 필수다.

여행의 시작은 고토열도 중 가장 큰 섬인 후쿠에지마다. 섬의 랜드마크로는 '오니다케'와 아분제 용암해안이 있다. 오니다케는 해발 315m의 구상화산으로 정상부가 모두 잔디로 덮여 있는 곳으로, 잔디 썰매를 탈 수도 있을 정도로 수북하다. 아분제 용암해안은 보드



다카하마 해수욕장



캠핑으로 즐기는 고토

라운 평화가 오기 전에 분출됐던 화기와 열기의 흔적이 새겨진 곳으로 길이가 7km에 이른다. 아분제 관광안내소에 들러 화산섬의 지형을 이해하고 흥미로운 민속자료도 관람할 수 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마을 끼고 있는 마을이 작은 항구 마을인 도미에이고, 산산도미에 캠핑장도 있다. 후쿠에지마의 중요한 풍경은 또 있다. 아세츠곶에 올라서 관음상전망대 앞으로 펼쳐지는 다카하마 해수욕장이다. 도미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관음상은 가장 높은 곳에서 풍어와 안전을 빌고 있다. 다카하마 해수욕장은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래사장 밑에 길을 만들며 바다로 흐르는 것이 특색이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돈토마리 해수욕장이 고운 풀등을 드러내 놓고 있다.

미학은
공존으로부터



▶ The Reason 25_도쿄 센소지와 스카이트리

Tokyo Senso-ji & Skytree

미학은
공존으로부터

가이도 신사



지옥 냄비 우동

신카미고토초는 5개의 지구로 나뉘고 각각의 특징이 있다. 그중에서도 동쪽 아리카와 지구는 에도시대부터 고래잡이로 번성했던 곳이다. 고래의 턱뼈로 만들어진 가이도 신사의 도리이가 그 증거다. 구지라 미야마 전망대는 고래를 관찰하고 출어 신호를 보내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히사카지마, 나루시마 등 고토열도에서 찾아가야 할 곳이 많다. 그렇지만 보통 첫 여행에서 다 방문하기는 어렵다. 여행은 때로 아쉬움을 남겨 놓을 때가 더 아름답다. 우리가 이곳을 다시 가야 할 이유기도 하다.

고토열도의 가장 북쪽으로 향하면 신카미고토초에 속하는 나카도리지마와 만난다. 유서 깊은 성당들은 물론이고, 고래잡이의 역사를 보여주는 경빈관 박물관, 고토 우동이나 동백기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관광물산 센터도 있다. 고토열도 내에서 꽤 넉넉한 여행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다.

마음이 허하다면 동쪽 끝의 부속섬 가시라가시마에 있는 천주당으로 향해 보자. 무인도였던 곳에 ‘숨은 기리시탄’들이 들어와 은신하면서 마을이 만들어졌고 유명한 가시라가시마 천주당을 세웠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둔 성당의 평온함은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만큼 충분하다.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석조 성당이라 12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점심 메뉴로는 고토의 명물인 고토 지고쿠 다키 지옥 냄비 우동을 추천한다. 일본 3대 우동으로 꼽히는데, 끓는 물에 면을 익혀 날치 육수 장국 혹은 날계란을 푼 장에 바로 담갔다 먹는다. 면에 동백기름을 발라서 면이 쉽게 불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누구나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라서 선물용 국수세트도 인기다. 당나라를 오갔던 견당사들로부터 처음으로 면 문화를 받아들인 지역이 바로 기항지였던 신카미고토초였음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다.



고토의 바다를 지키는 성모상

JNTO